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2012년 4월 1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이상형

Tel : 759-4066 Fax : 759-4485 E-mail : leeshng@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 [ 정책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 세계경제 ]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가 더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다.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세는 수출 둔화 등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유럽국가 CDS 프리미엄				
(전기비연율, %)							(기말 기준, bp)				
	10.3/4	4/4	11.1/4	2/4	3/4	4/4	12.1월	2월	3월	4.12일	
전세계 <sup>1)</sup>	3.7	4.7	3.7	3.2	3.3	3.1	포르투갈	1,502	1,184	1,070	1,087
선진국 <sup>1)</sup>	2.1	1.6	1.3	0.8	1.9	1.2	스페인	374	370	436	481
미 국	2.5	2.3	0.4	1.3	1.8	3.0	이탈리아	414	382	395	425
유로지역 <sup>2)</sup>	2.1	2.1	2.4	1.6	1.3	0.7	아일랜드	620	609	573	572
일 본	2.3	-0.6	-6.9	-1.2	7.1	-0.7					
신흥시장국 <sup>1)</sup>	5.9	8.9	6.9	6.3	5.2	5.5					
중 국 <sup>2)</sup>	9.6	9.8	9.7	9.5	9.1	8.9					

주: 1) IMF World Economic Outlook(12.1월)  
 2) 전년동기비  
 자료: IMF, Bloomberg

자료: Bloomberg

## [ 실물경제 ]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다. 고용 면에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0	2011	11.3/4	4/4	12.1/4	11.11월	12월	12.1월	2월	3월
GDP 성장률	6.3	3.6	3.6	3.3	··	-	-	-	-	-
GDP 민간소비	4.4	2.3	2.1	1.1	··	-	-	-	-	-
소매판매	6.7	4.3	4.7	1.9	··	1.2	2.0	0.6	5.3	··
(S.A, 전기비)	-	-	(1.6)	(-1.3)	(··)	(-0.3)	(-0.6)	(0.6)	(2.6)	(··)
GDP 설비투자	25.7	3.7	1.2	-3.3	··	-	-	-	-	-
설비투자지수	24.2	0.7	-3.1	-4.7	··	-2.8	-1.0	4.9	22.0	··
(S.A, 전기비)	-	-	(-1.5)	(-5.0)	(··)	(8.9)	(0.8)	(12.9)	(-5.4)	(··)
GDP 건설투자	-3.7	-5.0	-4.0	-2.1	··	-	-	-	-	-
건설기성액	-3.3	-6.7	-8.4	-0.5	··	-6.3	1.7	-9.5	14.5	··
(S.A, 전기비)	-	-	(-4.3)	(5.7)	(··)	(-6.7)	(14.6)	(-15.4)	(10.7)	(··)
수출(통관)	28.3	19.0	21.4	9.0	3.0	11.5	8.2	-7.3	20.6	-1.4
(일평균, 억달러)	(16.8)	(20.2)	(20.3)	(19.8)	(19.7)	(19.2)	(19.5)	(18.7)	(20.2)	(20.2)
제조업 생산	16.8	7.0	5.3	5.3	··	6.3	2.9	-1.9	14.8	··
(S.A, 전기비)	-	-	(0.3)	(0.1)	(··)	(0.1)	(-0.9)	(3.2)	(0.8)	(··)
서비스업 생산	3.9	3.3	4.5	2.7	··	3.0	1.6	0.7	5.5	··
취업자수 증감 <sup>1)</sup>	323	415	363	474	467	479	441	536	447	419
(공공부문 <sup>2)</sup> 제외)	395	424	353	485	424	528	438	495	400	377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물 가 ]

- 3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등의 영향으로 2.6%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하였다. 그러나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전년동월대비, %)				
	11.11월	12월	12.1월	2월	3월
■ 소비자물가	4.2	4.2	3.4	3.1	2.6
(전월비)	(0.1)	(0.4)	(0.5)	(0.4)	(-0.1)
▪ 개인서비스	3.7	3.8	3.4	3.0	0.7
■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3.5	3.6	3.2	2.5	1.9
■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2.8	2.7	2.5	2.6	1.7

-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유지되었다.

	(전월비, %)									
	11.11월		12월		12.1월		2월		3월	
■ 주택 매매가격	0.4	(0.6)	0.2	(0.2)	0.2	(0.2)	0.2	(0.2)	0.2	(0.2)
▪ 서 울	-0.1	(-0.2)	-0.1	(-0.2)	-0.1	(-0.2)	-0.1	(-0.1)	-0.1	(-0.2)
▪ 경 기	0.0	(0.0)	-0.1	(-0.1)	-0.2	(-0.2)	0.0	(-0.1)	-0.2	(-0.2)
▪ 지 방	0.9	(1.3)	0.6	(0.7)	0.5	(0.6)	0.4	(0.5)	0.4	(0.6)
■ 주택 전세가격	0.5	(0.7)	0.1	(0.1)	0.2	(0.3)	0.4	(0.4)	0.5	(0.6)
▪ 서 울	0.2	(0.3)	-0.1	(-0.2)	0.0	(-0.1)	0.2	(0.2)	0.3	(0.2)
▪ 경 기	0.0	(0.0)	-0.3	(-0.4)	-0.1	(-0.1)	0.2	(0.3)	0.4	(0.4)
▪ 지 방	0.9	(1.3)	0.5	(0.6)	0.6	(0.7)	0.5	(0.6)	0.7	(0.8)

주 : ( ) 내는 아파트 기준  
자료 : 국민은행

## [ 금융시장 ]

-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가 주요국 경기 및 국제금융시장 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주가는 하락하였고 환율은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완화되었다.

	<u>11.11월</u>	<u>12월</u>	<u>12.1월</u>	<u>2월</u>	<u>3월</u>	<u>4.12일</u>
■ KOSPI지수 <sup>1)</sup>	1,847.5	1,825.7	1,955.8	2,030.3	2,014.0	1,986.6
■ 원/달러 환율 <sup>1)</sup>	1,143.0	1,151.8	1,123.3	1,118.7	1,133.0	1,140.6
■ CD(91일)금리 <sup>1)</sup> (%)	3.55	3.55	3.54	3.54	3.55	3.54
■ 국고채(3년)금리 <sup>1)</sup> (%)	3.38	3.34	3.38	3.45	3.55	3.50

주 : 1) 기말기준

##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면서, 건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